



건전한 보수성향의 사람들이 나아갈 길

철학박사 차광진

1. 3대 개조사업과 문제제기
2. 경제발전과 사상문화의 향상
3. 진보주의의 태생과 보수주의
4. 건전한 보수성향의 사람들이 나아갈 길
 - 1) 나라를 사랑하자!
 - 2) 남북통일은 우리의 소원이며 국민의 당위적인 의무이다!
 - 3)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 속에서 서로 협조하자!
5. 결 론

본 자료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의 내용을 정리한 글입니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재단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 약)

개혁성이 없는 보수는 썩은 물과 같고 계승성이 없는 진보는 모래 위의 사상누각과 같다. 현재 한국의 보수성향 정치인들은 이기적이고 변하지 않는 기득권자의 수구적 자세 때문에 뜻있는 젊은이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건전한 보수성향의 사람들은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 속에서 나라사랑, 한반도통일,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과 함께 공동체를 소중히 하는 가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사상문화를 지키고 결집하는 실천적인 운동을 펼쳐나가야 한다.

1. 3대 개조사업과 문제제기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을 넘나드는 교역국이 되었으며, 스포츠·문화 등의 면에서도 뛰어난 기량으로 세계인들의 경탄을 자아내고 있다.

부존자원 하나 제대로 갖고 있지 않으면서 그것도 6.25 전쟁의 참화를 겪고 현재까지 남북으로 분단된 대치 국면에서 이루어 낸 경제개발과 민주주의 발전의 쾌거는 지구촌 선망의 대상이며 우리 민족의 자랑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 결과 우리들의 물질경제 생활은 풍족하고 편리하다고 볼 수 있어 ‘덧없이 좋은 세상’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소리 칠만도 하지만 실제 삶의 질

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원래 인간이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연세계를 개조하여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자신과 사회공동체가 어울려서 살아야 한다. 이것을 철학적·본질적인 측면에서 분류하여 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개조사업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인간의 사회생활이

물질경제생활이며,

둘째 인간개조사업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인간의 사회생활이

사상문화생활이며,

셋째 사회관계개조사업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인간의 사회생활이

정치생활이라 할 수 있다.

인간사회가 생존하고 발전하는데 이 3대 개조사업이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바람직한 인간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의 물질경제 생활은 선진국처럼 발전했으나 인간개조사업에 해당하는 사상문화생활과 사회관계개조사업에 해당된 정치생활은 매우 뒤떨어진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선진국들보다 상대적으로 산업화나 민주주의의 역사가 매우 짧고, 경제발전의 속도가 빠른 과정에서 나타난 부정적인 측면의 문제들이 쌓여 사회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즉 부익부 빈익빈현상, 사회 부조리와 지도층의 도덕불감증, 이기주의의 팽배와 자유방임주의, 증폭되는 사회 갈등문제 등으로 곳곳에 병리현상으로 신음하고 있다. 이러한 병리현상은 어느 나라이든 상존할 수 있다고 보나, 호전적인 북한과 대치상태에서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문제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고 본다.

따라서 문제해결을 위한 본질적인 측면에서 파악하여 보면 뒤떨어진 인간개조사업인 사상문화생활과 사회관계개조사업인 정치생활을 변화·발전시키면 문제의 심각성을 완화할 수 있고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본다.

2. 경제발전과 사상문화의 향상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자본주의 시대라고 하여 잘 살기 위해 모두들 물질경제에 올인하고 있다. 물론 헐벗고 굶주릴 때는 우선적으로 자연개조사업을 통해 물질경제생활을 발전시키는 것이 옳다.

그러나 경제가 사회발전에서 아무리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여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물질적 부를 창조하여 사회의 물질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기본 사명이 있지, 인간생활이 즐겁고 행복한 삶의 질하고는 별개의 문제이다.

즉 인간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는 말이다.

‘남과 북은 1945년 8월 15일에 똑같이 해방되었으나, 오늘날 남과 북의 생활상은 하늘과 땅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었다. 북한은 사람이 살지 못할 생지옥이라면 남한은 자유스런 지상낙원이다’

이 말은 북한에서 고위직에 있었고 주체사상을 연구했던 황장엽 선생이 저술했던 많은 책의 첫머리에 쓰여 있던 글이다. 선생은 10년 이상 남한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정치가와 학자 등의 지식인들을 만나면서 내린 결론은 ‘북한도 문제이나 한국이 더 큰 문제’라는 말을 전해주고 돌아가셨다.

한국의 물질경제에 대한 풍요와 편리함은 선진국 수준이나 낙후된 사상문화와 정치의 후진성 때문에 개인·사회·국가의 총체적인 문제를 쾌도난마(快刀亂麻) 식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음을 탄식한 말이다.

사실 가난하고 못 사는 경제적 낙후성은 쉽게 보이지만 사상이 뒤떨어져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보고 느끼기 어렵다. 특히 사상적으로 낙후된 사회일수록 ‘사상적 낙후성’을 깨닫기 어려워 미신을 믿는 사람이 과학적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길을 잘못 들었고 귀신에 홀렸다고 측은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러한 것은 모두 사상문화생활과 정치생활이 뒤떨어져 정론이나 공론이 없기 때문이다.

조선조 율곡선생도 ‘공론이 없어진다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다.

공론이란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정론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정론이나 공론이 없어지고 부의(浮議: SNS-Social Network Service)에 의한 소문이나 얕은 지식으로 대중들을 호도하고 이끌다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된다면 이 사회가 온전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겠는가?

선진화재단의 박세일 이사장은 “21세기 선진화 시대에 지식인의 사명은 국가가 나아갈 길에 대한 올바른 공론을 세우는 데 있다. 여기서 공론이란 사회의 지배적 견해인 여론이나 다수의 중론과는 다른 개념이다. 공론은 전문 지식인들이 나라 사랑의 마음으로 공동선을 위해 노심초사·심사숙고하여 제시한 견해이다. 그래서 공론은 단순한 여론(public opinion)이 아니고 그 시대 집단지성의 공적 판단(public judgment)이고 한 시대를 끌고갈 정론이다. 나라가 발전하려면 이 공론이 바로 서야 한다. 국가운영이 인기 영합적으로 일시적 여론과 중론에 따라 수시로 흔들려선 안 된다.”는 말이다.(박세일 컬럼집에서)

최소한 고등교육을 받은 지식인이라

면 무슨 문제든 좀 공리를 해서 언행에 옮겨야 한다고 본다.(*광우병 소란 같은 것은 해프닝이며, 천안함 사건은 불신의 극치로써 세계인의 조롱거리 기사(Gossip)로 밖에 안 된다고 본다.)

공자의 다음과 같은 말을 음미할 필요가 있다.

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학이불사즉망 사이불학즉태)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사리에 어둡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논어)

배운 지식을 틀에만 얹매어 놓고, 사색하고 공리하지 않으면 소견이 어둡고 좁아 얻을 것이 없다. 또한 생각만하고 배우지 않으면 독선에 빠져 위험하다는 말이다. 불교의 공부도 학문적인 공부와 참선을 병행해야 큰 스님이 될 수 있다는 말과 비슷하다.

배운 지식인으로 사상문화와 정치생활을 발전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나 사상문화나 정신교육의 실효가 짧은 시간에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사상문화나 정신교육의 효과는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실체도 없고 보이지도 않으며 붙잡을 수 없는 추상적인 이유로 모두들 외면하고 소홀히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 간간이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떠오르게 되면 인성교육의 부재이니 철학부재이니 야단법석들이다.

사상이란 사람이 살아가는데 삶의 요구와 이해관계에 따른 사회적 의식이다. 사상은 정신문화 전반에서 핵심적인 위치와 정신생활의 핵을 이루며, 인간개조사업에서 사상개조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사상문화생활 수준이 높아지면 물질 경제적 재산이 부족하여도 스스로 자족할 수 있으며, 사회공동체가 서로 협조하고 사랑하고 즐겁게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히말라야산맥 속의 ‘부탄’이란 작은 국가는 물질적 경제력은 형편없으나 행복지수가 높다는 얘기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사상문화생활이 나 정신세계가 안정되고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즘 흔히 말하는 내공이 쌓였다는 말이다.

또한 우리 옛 선비들도 안분지족(安分知足)이라 하여 가난한 생활을 분수로 알고 유유하게 살았다는 것은 정신세계를 갖고 닦아 물질세계의 부족함을 극복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사상세계는 개인이 스스로 평상시에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나, 국가적인 정책차원에서 연구하고 교양·교육 사업으로 꾸준하고 줄기차게 해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3. 진보주의의 태생과 보수주의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최대 약점은 개인들의 사상의 자유와 다양성만 강조한 나머지 사상적 무방비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종 비과학적이며 비현실적인 불건전한 사상들이 범람하고 있다. 반국가적이며 반사회적이며 반교육적인 사상의 침투로 사회적 혼란과 정치적 난맥상이 초래됨으로서 국가의 발전과 안보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불건전한 사상들은 사회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갈등으로 인한 비용이 연 15조원 이상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다.

우선 한국사회의 갈등문제 중 빠짐없이 나오는 진보주의 사상에 대한 연원을 한번 보도록 한다.

반봉건민주주의 혁명 초기에는 먹고사는 문제가 시급하고 절박한 문제였다. 이때 자본주의 사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생활 전반에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원리인 자유와 평등의 원칙을 적용한 것이 시장경제제도이다. 이 시장경제제도는 당시에 사람들이 먹고사는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완벽하지 못해 경쟁이 허용되면서 사회적 격차와 불평등이 발생한 것이다. 그 결과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사회적 운동이 여러 방면에서 발생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사회

주의·공산주의 운동이었다. 이러한 사회주의·공산주의가 진보주의의 태생적인 사상적 뿌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시장경제 자체를 폐지하고 그것을 집단주의적 경제체도로 교체하였으며, 특히 Marx주의자들은 그것을 계급투쟁이라는 폭력적 방법으로 실현하려고 애썼다.

그 결과 공산주의자들이 계급투쟁을 통해 건설한 사회는 전체주의 사회가 되고 말았으며, 진보주의자들이 말하는 공산주의 사회건설은 완전히 실패했고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도 뒤따랐다.

이와 같이 공산주의 사상의 오류는 백년도 안 돼 공산주의 국가들의 붕괴와 해체라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 뚜렷하게 드러났다.

진정한 진보주의라면 공산주의 국가가 해체되고 망한 이유를 연구하고 반성하면서 북한의 인권과 폭정과 통일에 대해 궤변을 늘어놓지 말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논변으로 해결책과 대안을 내놓아야 옳은 일인 것이다.

원래 진보의 상대어로 보수라는 말이 있으나 두 단어는 대립물의 통일을 이루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 즉 개혁성이 없는 보수는 썩은 물과 같고 계승성이 없는 진보는 모래 위의 사상누각과 같다.

이와 같이 인간의 역사는 계승성과 개

혁성을 통해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연속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즉 이런 과정은 앞선 세대에 의거하여 끊임없이 창조되며 동시에 미래로 끊임없이 새 것에 의거하여 또 현 것으로 밀려나는 반복되는 과정이다.(*이런 반복되는 과정을 헤겔은 正·反·합으로 설명하였고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변증법에서 부정의 부정의 법칙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실상 인간의 발전과정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앞 세대의 업적을 계승하지 않고서는 현 세대가 살수도 없고 발전할 수도 없다. 그러나 전 세대들은 자기들이 피땀 흘리며 창조한 업적에 애착심을 가지고 보존하고 고수하려는 보수성이 강할 수밖에 없다. 반면에 새 세대들은 새로운 것을 요구하고 발전하려는 인간의 본성적 요구 때문에 전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조건들을 새것으로 바꾸려는 혁신성이 강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계승성과 혁신성을 옹계 배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전 세대와 새 세대 사이에는 의견 차이가 당연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진보주의자들은 이미 패망한 공산주의의 망령이론으로 핵을 가지고 위협하는 적정(敵情)의 대치국면에서 사사건건마다 반국가적이며 반사회적인 행위로 이적행위를 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한국의 진보주의는 계승성과 혁신성을 위한 철학사상을

새롭게 설정하여 거듭 태어나지 않는 한 진정한 진보주의는 아니며, 거짓의 망령(亡靈)사상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4. 건전한 보수성향의 사람들이 나아갈 길(지식인들이 나아갈 길)

오래부터 우리는 국민성이 단결할 줄 모르고 불협화음으로 싸움만 한다는 지적을 익히 들어왔다. 오죽하면 ‘몽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구호까지 나왔겠는가? 그런데다 자유민주주의는 개인들의 사상의 자유와 다양성만 강조했지 사회의 통일적인 사상이나 사상발전을 위한 일에는 소홀하거나 무관심에 빠져있다.

특히 한국에서 비쳐지는 보수성향의 정치인들은 이기적이고 변하지 않는 기득권자의 수구적 자세 때문에 뜻있는 젊은이들의 호응을 받지 못한 채 진보주의 정치인들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허다하다.

영국보수당의 이론가였던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는 ‘보수의 정체성과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보수는 끊임없이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이 말을 곰곰이 상기해야 할 것이다.

어쨌든 사상적 혼란으로 인한 사상적 진리는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인간과 인간의 대결은 사상적

대결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사상적 대결에서의 승패는 반드시 사상의 진리성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사상에 대한 인식의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이해관계를 옹호하려는 의지와 신념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분산성이 높고 집단의 이익을 소홀히 여기는 개인주의사상으로는 맹목적으로 통일 단결된 수령 절대주의의 사상공세를 절대 막아낼 수 없다. 설사 사상에 대하여 좀 안다하는 보수적인 지식인들은 주관적 자존심만 높았지, 사상적 연대성이나 신념이 약해 실천무대에서는 일관된 사상적 입장을 고수하지 못하고 대세에 추종하거나 방관하는 쪽이다.

따라서 건전한 보수성향의 사람들은 자유와 다양성 속에서 사회공동체가 함께할 가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통일적인 사상문화를 지키고 결집하는 실천적인 운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건전한 보수성향의 사람들은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공통적인 관심과 신념을 갖고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나라를 사랑하자!

대대로 물려받는 우리 조국강산의 모든 것을 사랑하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에 대한

정의가 판에 박듯이 있는 것은 아니다.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그리워하며 사랑하고 못 잊어하듯 자기가 태어난 나라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애국심이요, 애국심에서 우리나라의 행위는 모두 애국운동이라 할 수 있다.

애국심을 좀 더 세분하여 말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나라사랑에 열정이 있어야 한다.

열정이란 뜨거운 관심과 응원의 마음이다. 이러한 열정은 나약한 힘을 강하게 키워주고 ‘하면 된다!’는 힘찬 기운을 불어넣어 긍정적인 효과를 끌어내는 것이다.

2002년도의 월드컵 경기를 보라. 광화문에서 남대문에 이르는 붉은 악마라는 100만 명이 넘는 응원단의 모습은 세계인들의 눈에도 경이로운 모습으로 보였을 것이다. 알고 보면 축구에 대한 열정보다도 애국심에 대한 신바람의 발로라고 본다.

1998년도 IMF의 관리체계에 직면한 나라가 국민들의 자발적인 금모기 운동으로 관리체제를 일찍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은 국민들의 나라사랑에 대한 뜨거운 열정도 빼 놓을 수 없다.

원래 우리민족은 타고난 정과 온순함 속에도 항상 가슴에 뜨거운 피가 흘러 언제든 신바람과 열정으로 표출

될 수 있다. 이런 연유로 민족적 기운이 결집될 때마다 우리의 열정이 활화산처럼 뿜어져 나온다고 보면 된다.

둘째 우리는 우수한 문화민족임에 자부심을 갖자!

우리는 건국이념인 홍익인간의 정신을 바탕으로 인간존중사상과 평화를 애호하는 문화민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수많은 외침 속에서도 우리민족의 끈질긴 저항과 국권수호에 대한 의지는 강했다. 비록 민족적 수난과 국권이 끊기는 일시적 굴욕이 있었지만 우리 민족의 혼과 조국을 사랑하는 염원은 연면히 내려와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일궈냈다고 본다.

중국의 옛 고서에 우리나라를 일컬어 ‘군자불사지국(君子不死之國)’이라고 한 말이 허튼 소리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 같다.

특히 1945년 해방직후 양분된 국토에 국론이 십인십색(十人十色)이었던 혼란과 파상적인 공산세력의 침략전쟁을 막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주춧돌을 깔았던 이승만 대통령의 큰 치적은 역대 어떤 왕조나 대통령보다 으뜸이라 할 수 있다.

또 오늘날 한국의 수많은 난관을 뚫고 경제발전의 기틀을 잡아 부국으로 이끌었던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과

공적 또한 크다 하겠다.

이 두 분을 훌륭한 지도자라고 세계가 평가하는 대통령이다. 그런데 자국에서 역사적인 사실과 가치를 폄훼하여 ‘독재자’라고 표현하며 북한 삼대정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특히 편향된 역사학자나 진보세력 중에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고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역사와 정체성을 부정하고 왜곡하여 대한민국의 역사를 뒤흔들어 혼돈과 거짓으로 후손들을 오도하고 있으니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영국의 역사가이며 정치학자인 E.H. 카(Edward Hallett Carr)는 ‘역사가란 사실과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가는 사람’이라고 했으니 정사를 아무리 흔들어 놓아도 제자리를 찾아가게 된다는 말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즉 역사를 속일 수 없다는 말이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애국애족을 한다고 해서 감성적인 민족주의나 편견에 의한 국수주의에 빠지면 이것 또한 곤란한 문제이다.

지금은 지구촌시대이며 세계화 시대이다. 아직은 국가를 기본단위로 생활하고 있지만 미래로 갈수록 세계화 현상이나 지구촌의 개념은 더욱 전개되고 촉진될 것이다. 즉 인류가 하나의

거대한 문명의 네트워크로 과학지식을 공유하고 협조·협력하여 서로 이용하는 시대이다. 그래서 21C를 지구인들이 함께하는 Homo Symbious(공생하는 인간)시대로 명명하고 있다.

세계는 앞으로 유럽연합이니 아프리카연합처럼 몇 개의 그룹(Group) 국가형태로 되었다가 아주 먼 훗날에는 하나의 국가형태로 될 것이란 설도 나온다.

어쨌든 우리나라도 세계 곳곳에서 서로 물건을 팔고 사는 교역국이며, 이미 150만명 전후의 다문화(민족) 가정의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전통 문화를 계승하되 보다 더 좋은 사상을 수용하고 끝없이 창조해야 우리 앞에 밝은 미래가 도래할 것이다.

2) 남북통일은 우리의 소원이며 모든 국민의 당위적인 의무이다!

남북통일은 우리의 소원이며, 기필코 이룩해야 할 의무이며, 대한민국의 미래이다. 남북통일 없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없고 세계로 뻗어나간다는 것은 더구나 한계가 있다.

흔히들 ‘통일비용이 많이 들것이며, 통일되면 모두들 못 살게 될 것이니 이대로그가 좋다’는 등의 막연한 생각을 가졌다면 매우 잘못된 사고이다.

지금까지 보수나 진보 쪽의 견해는 남북에 대한 해법을 과학적 객관적으로 접근하여 보지 않고 그때그때의 보수·진보의 유·불리를 통해서 나온 논변이며, 통일정책 또한 현 남북관리차원의 소극적인 정책수립이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북한의 통일정책은 60년간 한결 같은 무력적화통일의 전략 전술로 남북통일엔 검토대상이 될 수 없다.

단지 고착된 남북통일은 하는데 어찌 통일비용이 들지 않겠는가? 통일 초기 때 북한주민들의 식량, 위기관리 비용과 남북한의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한 비용이 들 것이다. 특히 남북한의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든다면서 독일통일을 실례로 들고 있다. 그러나 통독을 반면교사로 해서 시행착오를 줄인다면 그 비용은 의외로 줄어든 것이라는 설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어쨌든 남북통일이 늦어질수록 통일비용은 한없이 늘어나며 대립된 남북으로 우리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 또한 한국의 미래는 빠른 고령화시대로 성장 동력도 점점 떨어져 어둡다는 보고이다.

그러나 남북통일이 된다면 남한의 자본·기술력과 북한의 노동력이 통합되어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며, 통일로

얻어지는 긍정적이고 부가가치적인 측면은 통일비용보다는 몇 배의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또한 통일이 되면 새로운 경제영토인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동북아의 3성, 러시아의 극동지역과 한반도로 이어지는 경제벨트의 축이 만들어지면서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는 한선재단의 박세일이사장의 연구 분석이다.

따라서 남북통일은 우리국민의 당위적인 의무로써 세계 중심국가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대한민국의 희망이요 미래라는 것을 밝혀주고 싶다.

3)자유와 다양성 속에서 사회집단에 협조하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헌법에 정체성을 명시했고, 헌법 전문에 인간의 자유·기회균등·행복권을 다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개개인의 삶과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한 나머지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만을 강조하는 것 같다.

심지어 자유라고 했더니 다른 사람의 자유와 이익까지 탈취하여 자기이익만을 채우려는 탐욕스런 개인이기주의가 횡행한다. 또 아예 나와 관계없으면 이웃의 아픔이나 불의의 고통을 당해도 모르쇠로 일관된 자유방임주의

가 판을 쳐 사회는 병들어 신음하고 있다.

원래 인간의 생물학적 육체자체는 본능적인 삶의 욕망으로 동물의 욕망과 별반 다른 점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적 욕망만을 자유롭게 충족시켜 갖고는 인간의 고귀한 삶의 요구를 실현할 수 없다.

즉 사람들은 육체적 욕구의 충족만을 탐한다면 식색(食色)도락을 넘어서 동물보다 더 못한 잔인하고 교활하며 비굴하며 파렴치한 해악을 끼치는 못된 식충으로 전락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발전하려는 삶의 요구에 맞게 때로는 자제할 필요도 있으며, 육체를 건강하게 보존하는 한계를 넘어 자체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특히 권력을 가진 자, 고위직에 있는 자, 재산이 많은 자, 많이 배운 자 등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솔선수범하며 바른 행동과 겸손한 자세로 도덕적 책무(Noblesse Oblige)를 완수할 때 그 사회집단, 국가의 미래가 밝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을 요즘 ‘노블리스 오블리지’라 말하지만 예부터 ‘윗물이 맑아야 아래 물도 맑다’는 속담은 지도층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역할의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인간의 무조건적인 욕망의

자유보다는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생존하고 발전하려는 자주성이란 표현이 적절하다고 본다. 자주성이란 자신을 책임지고 건전한 심신을 보존하여 가치와 역할을 발휘할 수 있다는 주인정신이다. 주인정신인 자주성이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에 의해 모든 집단의 영고성쇠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자주성은 인간의 모든 생명활동의 근본 원천이며 동인(動因)으로 작용하여 창조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상호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생물체는 자연환경에 순응하며 생존하나 인간만은 자연을 개조하여 자연에 존재하지 않은 어떤 것을 새로 만들어 내는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아무리 자주성과 창조성이 있더라도 혼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며 태어날 수가 있겠나!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살수도 없다.

따라서 인간은 개인적 존재인 동시에 사회 집단적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개개인이 삶과 목적을 위해 운동을 하는 생명력이 있듯이, 사회집단도 잘 살고 발전하기 위한 목적의식성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집단의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다. (*생명은 생명체가 살려고 하는 속성이다. 집단의 생명(력)이란 집단이 목적을 갖고 이루고자 하는 성질이나 힘을 말한다.)

아무리 개인의 생명력이 뛰어나다 하여도 개인의 생명은 집단의 생명력에 의해 제한되고 규정되기 때문에 어떤 개인도 집단의 생명을 대신할 수 없다. 사회집단의 생명은 모든 개인생명의 모체가 되며 집단의 생명의 요구에 개인의 생명을 복종시키는 것은 당연하며 예속은 아닌 것이다. 이것은 곧 본능적 욕망을 이성적 욕망에 복종시키는 것이 예속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지이다.

따라서 역사의 주체, 사회적 운동의 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 집단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사회적 집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분열하지 말고 협조·협력하여 사랑하는 것이다. 서로 다른 100명의 개인이 협조하여 결합하게 되면 생명력이 백배가 아니라 천배 만배의 질적으로 다른 생명력(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사회집단의 결합된 생명력으로 자동차를 만들어 먼 길을 단 몇 분에 갈 수 있고, 잠수함을 만들어 심해로 오가며, 우주선을 타고 달이나 행성을 유영할 수 있는 큰 힘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사회집단의 구성원들이 목적의식적으로 사회적 협력관계를 맺음으로써 고립된 개인으로서의 지닐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 속에서도 사회집단의 개개인들이 서로 협조·협력하여 단결하고 사랑하여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야함을 강조한 말이다.

결론적으로 건전한 보수성향의 사람들(진정한 지식인)이 가야할 길은 먼저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통일문제에 적극적이며, 자유와 다양한 삶속에서 사회공동체가 함께할 통합적인 사상이나 가치 있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는 글이었다.

5. 결 론

인간이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연개조사업을 통해 물질경제생활을 하며, 인간개조사업을 통해 사상문화생활을 하며, 사회관계개조사업을 통해 정치생활을 해야 한다.

이 3대 사업이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하는데 대개 사람들은 물질경제생활에만 집착하여 잘 사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더구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만 부르짖었지 사회의 통일적인 사상의 중요함

이나 귀중함을 소홀히 다루고 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사회는 각종 불건전하고 반사회적인 사상들이 범람하게 되어 자주 사상적 혼돈에 빠져 사회갈등문제와 국기를 흔들며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통일적인 사상도 필요하며 국기를 흔드는 불건전한 사상들은 통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사상문화나 정신교육은 하루아침에 실효를 거둘 수도 없고 실체도 없으며 기약할 수 없는 불투명 때문에 일반 단체에서 이끌 사업이 아니다. 이런 일은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론이나 공론을 뽑고 바른 사상을 선택하여 가르치고 계도하는 교양·교육정책의 일환인 정치생활에서 할 일이다.

‘저 북한을 보라! 평양시민들이 신같이 떠받드는 김씨 일가의 우상화 정책을...’ 유일사상으로 세뇌된 인간이 정상적인 인간의 정형이 아닌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사상적으로 통일된 국민의 힘은 강력한 국력 그 자체인데, 어찌 사상의 긍정적인 측면을 소홀하게 다루고 무시하는가?

자유민주주의에서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만 강조한 개인의 힘을 사회집단의 막강한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사회관계개조사업인 정치생활에서 할 일이다. 정치생활은 인간의 정

신적 힘이나 물질적 힘을 직접 창조하는 생산 사업은 아니지만 인간의 생명 전체를 결합시킴으로써 결합된 생명력을 창조하는 가장 고차원의 사업이 바로 정치생활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나 민주주의도 아직 계속 진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그 어떤 사상도 대안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자본주의적 개인중심의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발전의 첫 단계로써 성숙되지 못한 일면성과 제한성을 가지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따라 더욱 개선하면서 점차 집단중심의 민주주의원리 중에 장점을 결합시켜 차원 높은 민주주의로 향상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사회관계 개조사업을 통한 정치(권)는 국민들에게 당면한 이해관계의 정책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이상사회가 어떤 사회인가를 제시하는 것이 좋다. 또 국가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단결하고 협조·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공론적인 사상통일을 계도하고 교육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며 중요하다.